시장 과열엔 정교한 개입으로

이 수 준 의
부동산 수첩

한국 경제의 고질병은 자산 쏠림과 비생산적 신용 팽창이다. 낮은 금리는 대출을 부추기고, 그 자금은 생산투자보다는 대부분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간다. 부동산 가격이 실물 가치보다 빠르게 상승하면 자산 보유자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산규모를 키울 수 있지만, 무주택자는 부채만 키워서 서로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 그렇다고 금리를 높이면 집값은 잡겠지만 실물경제 전체를 짓누르고 이미 벌여놓은 가계부채는 더욱 위태로워진다. 통상 경기부양을 기대하는 정권 초기에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선택이다.

이에 새 정부가 제시한 부문별 자본규제 방안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단선적 수단에서 벗어나, 신용 흐름의 조율을 통해 비생산적 대출을 구분해내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미 서울의 집값은 진보 정부의 출범이 기정사실화된 이후부터 급속도로 상승했다. 과거 보유세인상이 임대료 폭등으로, 양도세인상이 매물 잠금과 신고가 경신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아프게 경험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공언한 대로 세금 대신 신용 경로의 관리를 보다 정교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부문별 경기대응 완충자본(SCCyB)'이나 '부문별 시스템 리스크 완충자본(sSyRB)'은 은행이 부동산 경기 과열 등을 대비해서 특정 부문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금리를 높이지 않고도 은행의 대출 여력은 줄어들고 대출 심사기준이 엄격해진다. 신용의 유입은 조절하되, 실물경제 전반에는 부담을 덜 지우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안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선'의 상향이다.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 상환에 대비하여 보유(한국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지급준비율이라면, 위험가중치는 반대로 은행이 대출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일정 비율의 손실완충 자본을 더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약 15%, 돈 떼일 염려가 없는 정부나 공공기관 상대로는 0%, 상대적으로 위험한 신용대출이나 PF 대출의 경우 100%가 넘는 식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은 같은 금액을 대출할 때 더 많은 자기자본을 적립해야 하므로, 금리 인상 없이도 자연히 주담대 공급이 억제된다. 이는 대출 총량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금융권 자원이 기업 대출 등 실물부문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 같은 감독행정의 영역은 국회의 입법 없이도 금융당국의 재량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민첩성을 높인다. 다만, 이러한 규제로 인해 제한된 대출 여력이 우량 담보인 서울, 강남 아파트로만 쏠려 양극화를 키울 수도 있기때문에, 지역별 주택 공급 확대정책과 병행하는 등 보완책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금융권에 대한 세제 개편도 선제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은행과 제2금융권은 고금리 시기에 예금-대출 마진을 통해 고수익을 얻었지만, 이에 대한 조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과거 외환위기 시기에 사례가 있었던 특별부담금이나 초과이익세 같은 형태의 증세를 도입하면 조세정의 측면에서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유동성을 흡수하고 신용 팽창의 책임도 분담시킬 수 있다.

금리의 고통도 세금의 부작용도 모두 겪은 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핵심은 자본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흘러가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단순한 긴축도, 맹목적 경기부양도 아닌, 자산 쏠림을 조정하고 생산적인 흐름으로 신용을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규제와 유인의 정교한 조합, 질서있는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로이에아시아 컨설턴트 대표

널뛰는 스테이블코인

기자 수첩
나 유 리
〈금융부〉

시총 2위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회사인 써클 인터넷 그룹이 지난 5일 상장했다. '얼마나 성장하려나?'라며 구매한 주식은 64달러에서 약 10일 만에 298달러까지 오르더니 그 이후 180달러까지 떨어졌다.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시간이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이 이슈다. 이름답지 않게 스테이블(Stable·안정적인)코인만 들어가면 주식이 널뛴다. 네이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선점하겠다고 하자마자 주가가 25만6500원에서 40%나 급등했다. 키카오페이는 스테이블코인 활용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전달 2만8800원에서 6만4000원까지 올랐다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상표를 출시하고 있다. 원화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련 정책과 법도 마련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만큼 우선 뛰어들고 보자는 의도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은 시간 장소 등에 관계없이 자금이 효율적으로 오갈 수 있다는 장점 만큼이나 위험 요소가 많다.

앞서 실리콘밸리은행(SVB)은 고객 예금을 장기 국채에 투자했지만, 금리가 급등하면서 국채가격이 하락했다. 예금액을 찾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 고객들은 예금 인출을 강행했고, 실리콘밸리은행은 손해보고 국채를 팔면서 유동성 위기가 와 파산했다.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또한 안정적인 화폐를 대신해 주로 국채를 보유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가격이 떨어지고, 이를 우려한 고객을 중심으로 코인런이 일어나게 되면 거래소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은행도 파산, 한 나라의 경제까지 휘청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순탄할 것 같았던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도 하원에서 연방기관의 역할, 기업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에 따른 은행업에서의 분리 문제 등을 이유로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 기업의 수익원, 시장의 활성화 만큼이나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늦더라도 확실한 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1일 (음 6월 7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48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는 즐거운 마음으로. **60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을 가보자. **72년생**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라. **84년생** 마음이 혼란하면 독서로 달래보자.

소 **37년생** 깊은 밤을 지내면 찬란한 새벽이 온다. **49년생**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61년생** 이기고 더 큰 곳으로 나아간다. **73년생** 흉년에 땅을 사면 주변의 원망을 듣는다. **85년생**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돌아보라.

호랑이 **38년생** 나이 든다는 것을 두려워 말아야. **50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62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쓰자. **74년생** 오늘은 나만을 위해 지출을 해보자. **86년생** 동분서주 바쁘기만 하고 실속은 없다.

토끼 **39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 **51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더 푸른 법. **63년생** 추억으로 기분을 달랜다. **75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87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스스로 만들어서 써라.

용 **40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비켜가라. **52년생**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 **64년생** 자기겸손은 커다란 덕목. **76년생**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이 아름답다고 연못에 빠지려는가. **88년생** 결혼생활은 배려와 존중이 중요

뱀 **41년생**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라. **53년생** 외출할 때 이륜차를 조심. **65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하면 길이 보인다. **77년생** 충동적인 사치로 인해 빚내서 빚을 갚는다. **89년생**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

말 **42년생** 누구든 인연의 연결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세상사. **54년생**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66년생**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지체. **78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90년생**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내가 해야만 한다.

양 **43년생** 순리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걱정. **55년생**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으나 쪽빛보다 푸르다. **67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야 할 때가 있다. **79년생** 반려견을 키우려면 자금계획부터. **91년생**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라.

원숭이 **44년생** 처음이 중요하나 끝맺음도 잘 해야 한다. **56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아야. **68년생** 독단에 빠지면 위기가 오니 겸손하게 소통을. **80년생**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92년생** 간절한 기도는 가피를 불러온다.

닭 **45년생** 자식의 잘못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 **57년생** 감사한 마음은 항상 기회를 제공한다. **69년생** 빨간색 우체통을 보니 공연히 반갑다. **81년생** 지금 당장 못하면 마음이 급해진다. **93년생** 제3자로 해서 허황된 꿈이 지출을 부른다.

개 **46년생** 주식투자는 시간 낭비. **58년생** 결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70년생** 시골로 이사 가려면 먼저 한달 살아보기를 해보자. **82년생** 일도 중요하고 미래도 계획을. **94년생** 구름만 잔뜩 끼어있고 비는 오지 않는 형국이다.

돼지 **47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59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지기 쉽다. **71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83년생** 때가 아니니 조금 더 기다려라. **95년생** 만난 연인에게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다.

김상회의 四季

말년 자식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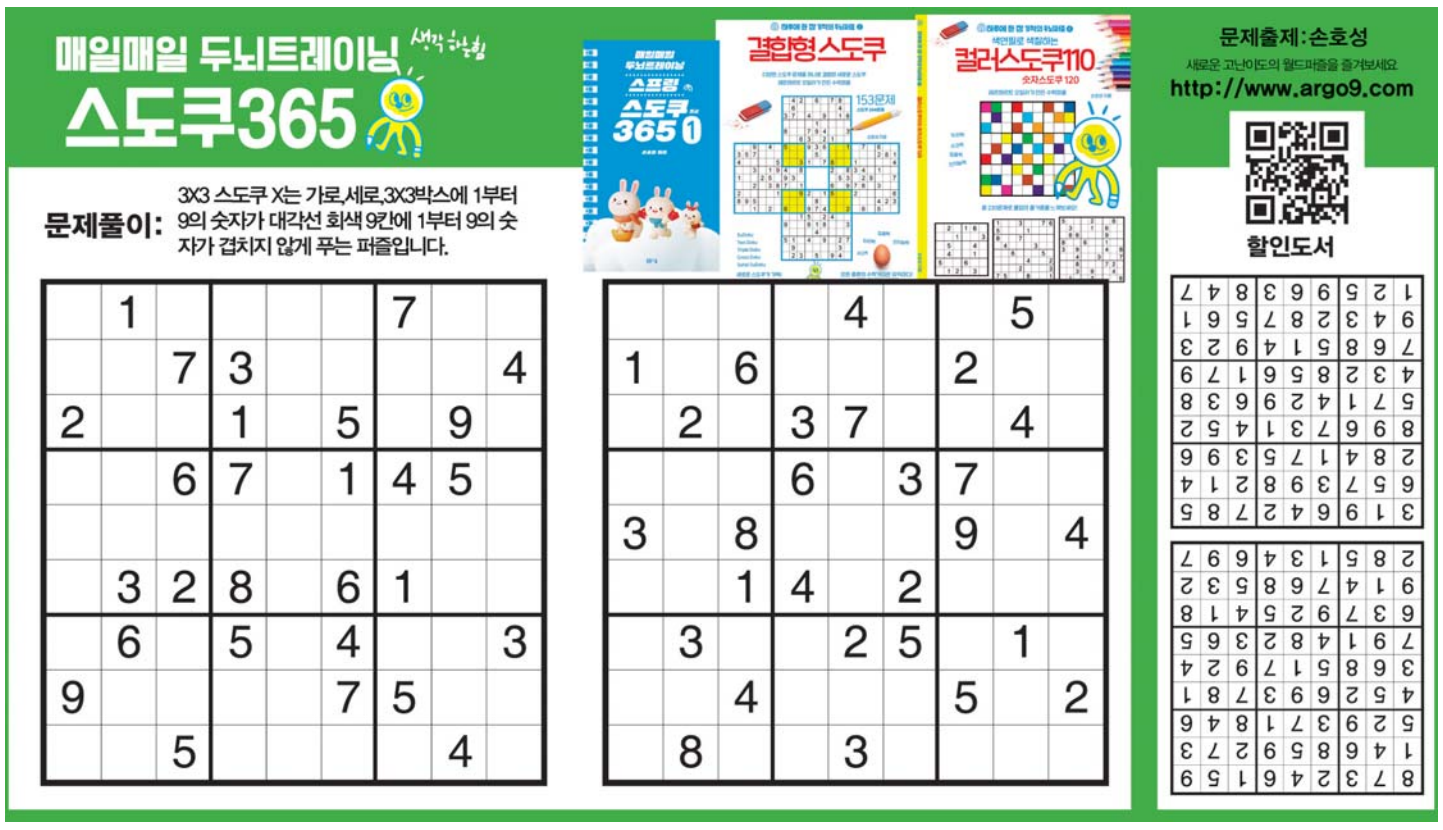
나이 든 사람에게 손주는 보물이다. 손주를 볼 때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실감한다. 자식을 키울 때도 사랑스럽지만, 나이 들어 손주를 보면 자식보다 더 예쁘고 더 사랑스럽다.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 손주와 즐겁게 지내고 자식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말년 운이 좋은 사람에 속한다. 명리학에서는 말년 운과 자식 운을 무척 중요하게 여긴다. 사주에서는 시주時柱가 그 사람의 말년과 자식 운을 보여준다.

시주가 좋으면 나이 들어 알찬 수확을 하고 그런 수확이 바탕이 되어 자식들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변한다. 남자는 시주에 정관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여자는 식신이 있으면 자식 운이 좋다. 자식 운은 어느 하나로 규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자식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과 자식이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은 얼핏 보면 달라 보이지만 모두 좋은 자식 운이다. 자식이 명문대학에 진학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좋은 자식 운이다.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자식이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돌본다면 그 어떤 것보다 자식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말년에 손주와 즐겁게 보낸다는 건 손주는 물론이고 자식과도 사이가 좋기 때문이다. 결국, 말년 운이 좋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모든 부모는 자식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산다. 젊어서는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부러움을 산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자식 운이 모든 걸 결정한다. 자식이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돈 많은 사람에게도 부러운 대상이 된다. 초년 중년 말년 중에서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자식 운은 말년 운의 큰 축을 담당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70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80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